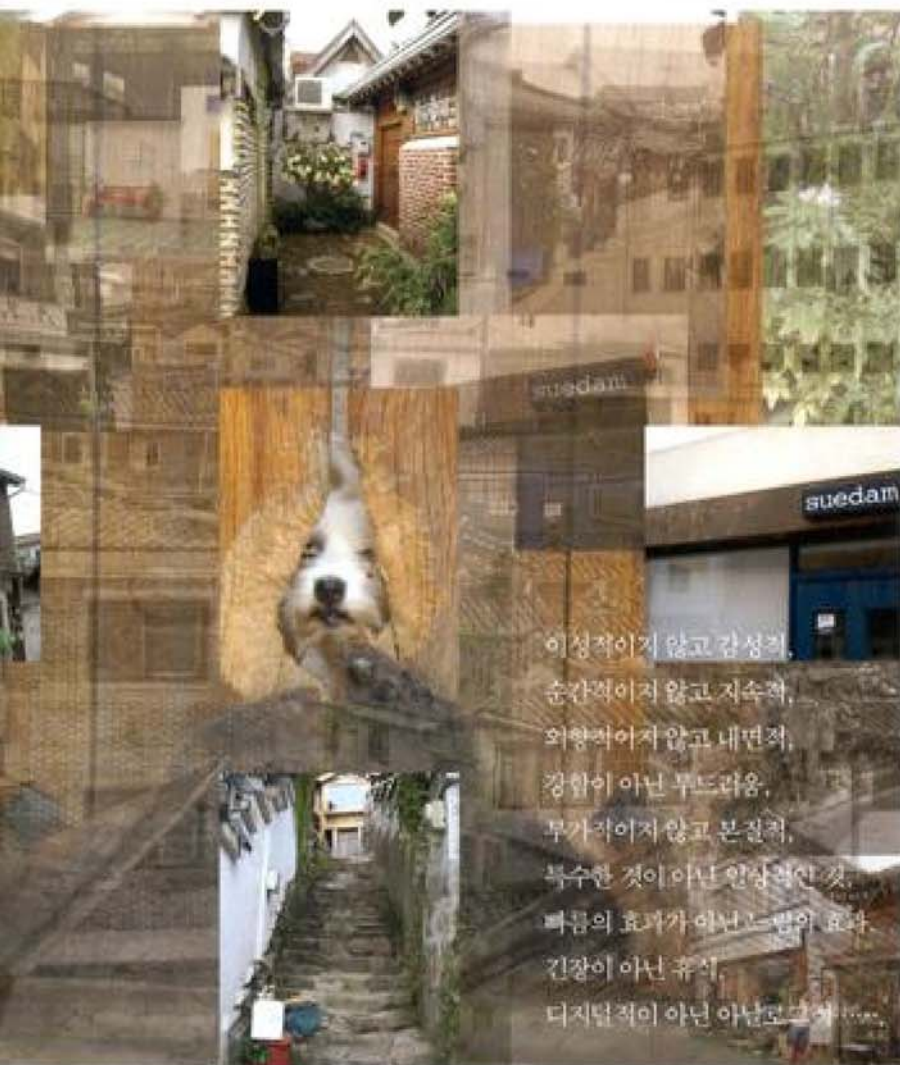


박 열, <스튜디오 UADG> 소장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
외향적이지 않고 내면적,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
무가치하지 않고 본질적,
복수의 효과가 아닌 느낌의 효과,
긴장이 아닌 휴식,
디지털적이지 아닌 아날로그적.....

삼순이 건축은 이러한 것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역행하는 듯하지만 그의 가치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기에 그 생명력은 지속될 수 있으며, 바쁜 도시적 경험에서 잠시 휴식과 생활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복촌의 모든 것들은 도시에서의 삼순이 공간의 표상이라고 여겨진다.

골목길, 마당, 입구, 계단, 간판, 건물들, 자연...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을 내포한, 시공간이 응축된 공간들이다.

인단체의 미학을 가진 공간으로서 복촌의 공간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느끼게 한다.

현대에서 이러한 은은함과 잔잔함이 바로 '삼순이 건축'의 요소라 할 수 있지 않을까.